

# ADVANTAGE

## NO.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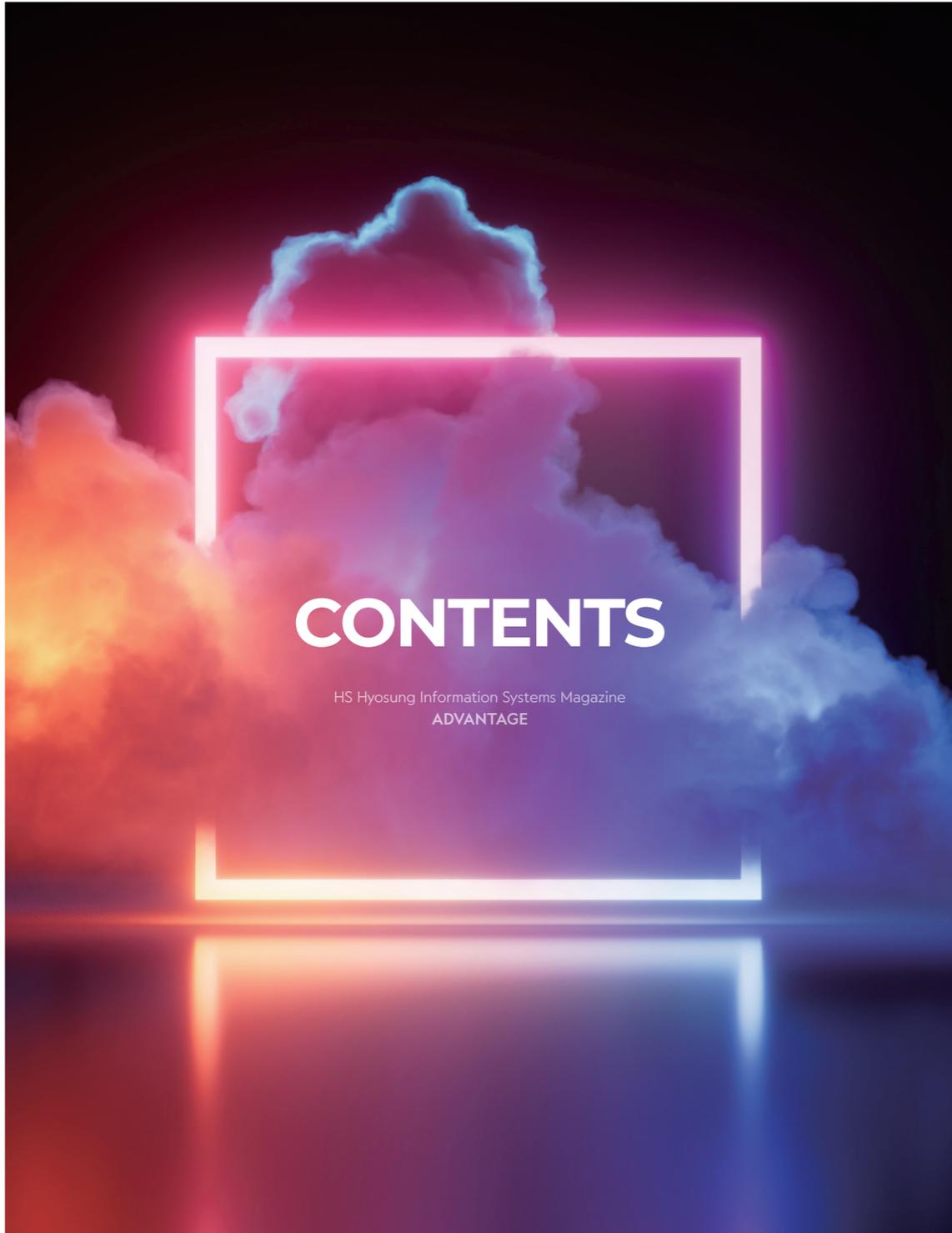
HS Hyosung Information  
Systems Magazine

**1** **40<sup>th</sup> Anniversary**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40년의 발자취

**2** **Solution Focus**  
데이터센터 혁신을 위한  
간편한 선택법

**3** **Trend Report**  
AI 데이터센터,  
이것 하나면 끝!

2025



# CONTENTS

HS Hyosung Information Systems Magazine  
ADVANTAGE

## HOT ISSUE ————— 05

AI 시대, 사이버 복원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 40<sup>th</sup> ANNIVERSARY ————— 08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40년의 발자취

## SUCCESS STORY ————— 20

탄탄한 콘텐츠 인프라를 위한 JTBC의 선택  
구독형 스토리지 서비스 'HIS STaaS'

20년 데이터 기술력의 강자 유알피  
AX 시대 비상의 날개 퍼다

## TMI SERIES ————— 32

AI 시대의 주역, Arm 서버와 차세대 보안 솔루션

Part I. AI 시대! 아주 특별한 서버가 나타났다

Part II. 변화하는 백업 환경을 위한 최적의 선택

## SOLUTION FOCUS ————— 40

데이터센터 혁신을 위한 간편한 선택법

## TREND REPORT ————— 46

AI 데이터센터, 이것 하나면 끝!

## 새로운 40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성원해 주신 고객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창립 4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1985년 출범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지난 40년간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IT 인프라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음 40년을 열어가는 중요한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슬로건인 ‘같이한 40년, 가치할 미래’ 아래,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기존 스토리지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반의 AI·친환경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을 발굴·육성하며 미래 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데이터 인프라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 여러분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AX 시대’를 주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그간 분기별로 발행해 왔던 사외보 Advantage는 2025년부터 인쇄본을 연 1회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수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40년 그리고 앞으로의 40년을  
함께해 주실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대표이사 양정규

## AI 시대, 사이버 복원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평동현 / 디지털타임스 기자

아무리 ‘다이나믹 코리아’라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내내 각종 이슈가 쏟아지며 숨 돌릴 틈이 없다. 계엄사태가 발생·수습된 뒤 새 정권이 들어섰고, ‘박스피’로 불린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했으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5년 만에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함께 치맥 회동을 가졌다. 만약 누군가가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며 지난해 11월쯤 이를 알려줬다면 믿었을지 모르겠다.



마찬가지로 올해 통신·금융부문을 비롯해 굵직한 해킹·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른 점 역시 여전히 믿기 어려울 정도다. 70대 이상 노년층도 유심 복제와 불법 펌토셀이 대체 원지, 또 내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아보는 모습에 민감이 교차한다. 공공 시스템 일부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며 '재해복구(DR) 체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았고,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때아닌 재평가를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 사이버 복원력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인식이 전례 없이 높아진 분위기다. 이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 화두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에는 클라우드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 오류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에 연결된 윈도우 기반 단말 약 850만 개에 블루스크린(BSOD)을 띄우며 각국 공항, 병원, 증시 등을 멈추게 한 바 있다. 올해 10월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내부 시스템의 작은 버그가 대규모 장애로 번져 레딧·줌부터 애플TV·삼성월렛 등까지 1,000여 개 기업의 서비스가 몇 시간 동안 차질을 빚기도 했다.

혹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DX)은 현실 세계의 상당부분을 이미 디지털 환경으로 옮겼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상이 된 만큼,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소·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한 사이버 복원력 확보는 변화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진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가트너는 2026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로 △AI 슈퍼컴퓨팅 플랫폼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도메인 특화 언어모델 △AI 보안 플랫폼 △AI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 △컨피덴셜 컴퓨팅 △피지컬 AI △선제적 사이버보안 △디지털 출처 △지리적 이전을 선정했다. 과반이 AI 관련인 가운데 정보보호 관련 주제도 상당수 포함된 게 눈에 띈다.

### 사이버 복원력 확보, 선택이 아닌 필수

가트너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선제적 보안 솔루션이 기업 전체 보안 지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 2029년까지 신뢰할 수 없는 인프라에서 처리되는 작업의 75% 이상이 컨피덴셜 컴퓨팅을 통해 사용 단계에서 보안을 확보하는 한편, SW자재명세서(SBOM)·디지털 워터마킹 등 디지털 출처 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재 리스크에 노출된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앞으로는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소버린 클라우드나 자체 데이터센터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전하는 현상도 다양한

산업에서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유사한 맥락에서 맥킨지는 지난 7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신뢰·사이버 보안을 에이전틱AI 등과 함께 올해의 기술 흐름 중 하나로 꼽았다. AI 기술 발전으로 위험을 포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디지털 신뢰나 사이버 보안 관련 용어에 대한 구글 검색량은 20% 증가했다. 디지털 자산, 보안 취약점, 인증 등 관리는 생성형AI가 점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세계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란 게 맥킨지의 분석이다.

이처럼 사이버 복원력은 AI 시대의 새로운 리스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대응하는 경쟁력이다. AI 시대의 초기에 나오는 경고음을 지나치지 않고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 장차 'AI 3대 강국(G3)' 도약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내에도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도울 수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국내 기업용 IT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AI·데이터 인프라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다시 '핫'해진 DR 솔루션으로 떠오르는 기업이자, SW정의데이터센터(SDDC) 및 하이퍼컨버지드인프라(HCI)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AI 도입을 지원하고 있고, 새롭게 'VSP 원' 스토리지 제품군을 통해 백업, 복구, 보안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사이버 복원력 중심의 데이터 보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해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 구조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잇단 사이버 위기에 대해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낸 데 이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도 연내 발표한다.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AI 강국을 향한 도전이 이어질 수 있길, 내년에는 이를 위한 실질적 투자와 노력이 산업 전반에 확대되길 기대한다.

### 1985-2025

시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  
더욱 앞서가는 솔루션과 기술력으로  
미래를 연결합니다.

같이한 40년, 가치할 미래



Anniversary

HS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1985년, 국내 IT 기반의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독점하던 국내 기업용 대형 컴퓨터 시장에 ‘효성NAS’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기술의 진화, 시장의 변화, 고객의 기대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며, 급변하는 IT 업계에서도 ‘창립 40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2025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같이한 40년, 가치할 미래’ 라는 슬로건을 선정하고, 2030년 AX(AI Transformation) 선도기업을 목표로 하는 비전도 선포했다. 이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기업’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또다른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THE FUTURE OF  
AI INNOVATION

HS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1985~1989 Genesis

## IT 인프라 비즈니스 기반 구축으로 40년 여정의 첫발을 떼다.

1980년대 초, 컴퓨터를 자체 생산하던 효성그룹은 첨단 산업의 본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용 대형 컴퓨터 시장에 직접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985년 8월, 글로벌 IT 벤더인 미국 NAS사와 50:50 합작형태로 효성NAS(현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를 설립했다.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운 효성NAS는 당시 외국계 회사가 장악하고 있던 국내 중·대형 컴퓨터 분야에서 '85년 강원산업, '86년 한국전력, '87년 동방생명, '88년 KBS(88올림픽 방송) 등 다양한 산업군에 메인프레임 및 스토리지를 공급하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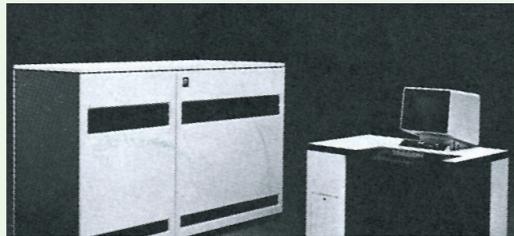


### 효성NAS 주식회사 설립, 국내 유일 IT인프라 전문기업 탄생

1985년 8월 26일, 효성그룹은 첨단산업 자립을 위해 미국 NAS(현 Hitachi Vantara)사와 합작으로 '효성NAS 주식회사(현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를 설립했다. 외국 기업이 주도하던 중·대형 컴퓨터 시장에서 국내 자본이 참여한 유일한 메인프레임 공급사로서, 국내 기업용 IT인프라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1985

1987



### 창립 초기임에도 초대형 고객사 확보

1985년 강원산업(현대제철에 합병) 5GB 스토리지 공급을 시작으로 1986년 한국전력 메인프레임, 스토리지 공급, 1987년에는 동방생명(현 삼성생명)에 스토리지를 공급했다. 이처럼 국내 기업에게는 불모지였던 기업용 IT인프라 시장에서 창립 3년 만에 제조, 공공, 금융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며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

# 1990~1999 Growth



### 88 서울올림픽을 책임지다!

1988년 효성NAS는 KBS에 메인프레임과 스토리지를 공급해 '88 서울올림픽' 방송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당시, 효성NAS는 KBS IT인력과 협업해 수요예측, 예약·인력·일정관리, 녹화·백업을 지원하는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했다.

1988

1989



### 전국구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빠르게 확장

효성NAS는 1989년 2월, 창원에 지방사무소를 개설해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구미사무소를 개설하며 전국구 서비스로 신속히 확장해 나갔다. 이후 창원사무소는 부산사무소로, 구미사무소는 대구사무소로 확장 이전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 IT 업계의 주류로 도약하다.

창립과 동시에 빠르게 기반을 확장한 효성NAS는 1990년, 사명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이는 더 이상 외국계 벤더에 대항하는 국내 IT인프라 시장의 대안에 머무르지 않고, 메이저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

1990년을 기점으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메인프레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IBM 제품을 기술, 성능 면에서 앞지르는 신제품을 다수 발표하며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메인프레임 시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1금융권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메인프레임 프로젝트까지 완수하며 시장 선두업체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으로 사명 변경

1990년 5월, 효성NAS는 히타치(Hitachi)의 NAS 인수 및 사명 변경(Hitachi Data Systems, HDS)에 맞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는 기술지원과 정보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각 사의 기술과 운영 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국내 최초 ‘재해복구 솔루션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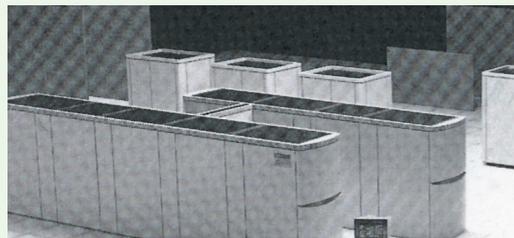
재해복구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50여 대형 고객사를 초청해 ‘Disaster Recovery Planning & Data Security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후 9.11 테러를 계기로 관련 수요가 폭증하며, 국내 재해복구 분야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1990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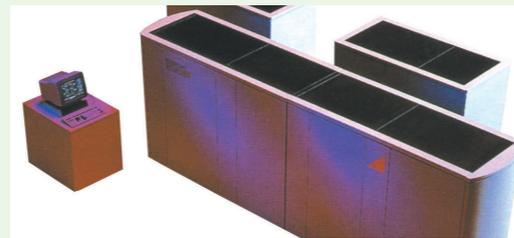
1994

1996



메인프레임 시장의 근간, 제1금융권 공략 성공

당시 글로벌 1위 IBM만을 고집하던 보수적인 은행권에서 1993년을 기점으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메인프레임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경남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은행, 하나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등 주요 은행이 자사의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금융권 메인벤더로서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



LG-EDS에 국내 최대 규모 SKYLINE 메인프레임 구축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LG-EDS(현 LG CNS)에 국내 최대 규모의 SKYLINE 메인프레임 구축을 완수했다. 외산 업체들이 장악하던 IT 인프라 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메인프레임을 설치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삼성생명/삼성화재/SKT 등에 SKYLINE 메인프레임 구축이 확산되었다.

2000~2009 Storage Value Innovator

도달 스토리지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역량을 강화하다.

1990년대 말, 국내 컴퓨팅 환경이 메인프레임 중심에서 유닉스 기반 오픈 시스템과 분산컴퓨팅으로 급격히 전환 되면서, IT 인프라는 전 산업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이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역시 메인프레임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스토리지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했다. 특히 9.11 사태 이후 폭증한 재해복구 수요에 대응해 국내 최초 실시간 비동기 재해복구 시스템, 이기종 스토리지 가상화, 세계 최장거리 재해복구 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스토리지 및 재해복구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립했다.



Lightning 시리즈 출시,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 본격 진입

21세기 시작과 동시에 고성능 하이엔드 스토리지 Lightning 시리즈를 출시하며 돌풍을 불러 일으켰다. 병목 없이 서버 스토리지를 통합하고, 무중단 운영이 가능했던 Lightning 시리즈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2000

2002



연매출 1,000억 원부터 2,000억 원 달성까지, 확실한 자리매김

2002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전년 대비 53% 성장한 1,00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6년 뒤인 2008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매출 2,000억 원을 달성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국내 IT 인프라 시장에서 스토리지 분야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 ‘Storage Value Innovator’로 새로운 도약 선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고객 중심, 기술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토털 스토리지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고객 가치를 높이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세계 최장 DR & 국내 최초 DR 구축

외교통상부에 서울-워싱턴 간 12,000km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대륙 간 재해복구 시스템, 세계 최장거리 실시간 DR을 구축했다. 같은 해, 금융권에는 국내 최초로 3중 데이터센터 기반 DR 시스템을 구축하며 고가용 무중단 체계를 구현했다.

2005

2006

2009



### 국내 최초 이기종 스토리지 가상화 구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무중단 이기종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Universal Volume Manager(UVM) 가상화 기술을 선보이며, 타 벤더 스토리지 사용 고객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 HCAP, 공공 기록관리 시장 석권에 이어 금융까지 확장

HCAP(Hitachi Content Archive Platform)은 출시 3년 만에 국가기록원,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40여 개 정부 부처에 도입되며 공공시장을 석권했다. 이후 ‘HCP’로 제품명을 변경하고 기능을 고도화해 현재는 클라우드, PACS, 랜섬웨어 대응, AI 데이터 레이크 등 다양한 용도로 100여 개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다.

## 2010 ~ 2019 Transformation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 전환에 충력을 다하다.**

설립 후 2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0년대에 접어들며 클라우드의 급부상과 빅데이터 등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분야의 혁신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단순한 Storage Value Innovator를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며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다.



### 하이엔드 스토리지 1위의 서막

하이엔드 스토리지 1위(2014년)의 시작을 알리는 VSP(Virtual Storage Platform)를 출시했다. VSP는 가상화, 자동화, 통합 기능을 대폭 강화한 스토리지로, 데이터 저장 장치를 넘어 클라우드 및 서비스 중심 인프라의 기반이 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2014년 하이엔드 스토리지 1위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써 확고한 의미를 지닌다.

2010

2014



### 실시간 액티브-액티브 무중단 운영의 새로운 표준 제시

업계 최초로 두 대의 스토리지를 하나처럼 운영할 수 있는 스토리지 미러링 기술, GAD(Global Active Device)를 선보이며 또다시 DR 분야에서 이정표를 세웠다. 같은 해, 넥슨에 VSP G1000과 GAD를 공급하며 장애 발생 시에도 중단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창립 30주년 비전 선포, '빅데이터 중심 종합 ICT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창립 30주년을 맞아 'Innovation for the Connected World'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빅데이터 중심의 종합 ICT 솔루션 및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글로벌 솔루션을 현지화하고, 오픈소스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국내 최대 HCI & SDDC 전문조직 구성,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환 선도**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컨버지드인프라(HCI) 및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SDDC) 전문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에 승부수를 띄웠다. 단순한 인프라 공급을 넘어, 금융·제조·공공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 현대화와 클라우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였다.

2015

2016

2018

2019



**빅데이터 시장 본격 진출, 대형 레퍼런스 확보**

2016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Hitachi가 인수한 펜타호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출시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후 효성 베트남 공장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를 완수하며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분석, 시각화까지 통합 기능을 완벽히 제공했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체험을 위한 DX센터 오픈**

2019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아태지역 최초로 고객의 성공적인 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하기 위한 DX센터를 청담 본사에 오픈했다. 이어진 DX센터 시즌2에서는 PaaS 및 블록체인의 환경 체험, 시즌3에서는 AI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2025 AI-driven Acceleration**

**AI-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다.**

2020년 이후 시가 대세로 떠오르며 전 산업에 걸쳐 관련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역시 AI 중심 인프라의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AI 전용 제품군을 대폭 확대하고, GPU 서버 벤더 및 AI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통합 AI 인프라 공급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동시에 하이엔드 스토리지 분야에서도 11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국내 IT 인프라 시장을 리드하며 굼직한 발자국을 남긴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40년의 변화와 도전을 디딤돌 삼아 다음 100년의 여정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고 있다.



**파트너 비즈니스 본격 확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기존의 파트너 비즈니스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파트너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20년에 파트너 비즈니스 매출이 전년 대비 205%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후로도 연평균 약 50%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20

2021



**금호타이어에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예측 시스템 개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금호타이어와 타이어 개발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해,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컴파운드 및 성능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다. 양사의 전문가 협업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현하며, 타이어 개발 전 과정의 혁신을 이끌어냈다.



### 15년간 이어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1년부터 서울시립여성 보호센터에서 나눔 및 봉사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희망하는 임직원의 급여 일부분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급여 나눔과 연말 편의 물품 전달 등을 시행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매월 2회씩 진행하던 임직원 봉사활동을 주1회 방문으로 횟수를 늘리며,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 국내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 점유율 10년 연속 1위 달성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23년 IDC 시장조사 기준 국내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에서 42.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는 금융, 공공, 제조 등 주요 산업군에서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 차세대 통합 스토리지 플랫폼 'VSP One' 출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블록, 파일, 오브젝트,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와 같이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 플랫폼을 하나의 데이터 플레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VSP One'을 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선보이며, 스토리지 분야에서의 시장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



### Arm 서버 'GreenCore' 출시 고효율·저전력 데이터센터 구현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국산 서버 전문업체 엑세스랩과 협업하여 고효율·저전력 Arm 서버인 'GreenCore(그린코어)'를 자체 공동 개발, 출시했다. GreenCore는 x86부터 GPU 서버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Arm 아키텍처의 강점을 활용해 전력 효율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차세대 서버 솔루션이다.

2021

2022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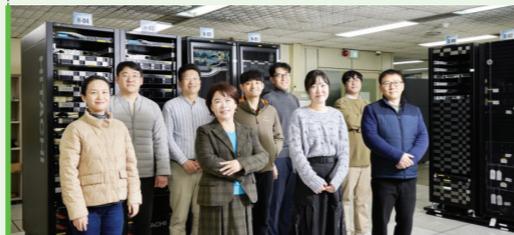
2024

2025



### 통합 AI 인프라, '효성 AI 플랫폼' 출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GPU 서버부터 고속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이르기까지 AI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통합한 '효성 AI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AI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AI 서비스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구광역시청 'D-클라우드 무중단 시스템' 성공 구현 지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대구광역시청의 D-클라우드 고도화, 멀티 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자동화 시스템과 외장 스토리지 연동으로 DR 효율성을 높였으며, 단계별 로드맵을 기반으로 무중단 시스템을 실현해 공공 IT 혁신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으로 사명 변경, AI 혁신 및 DX 비즈니스 강화

HS효성그룹의 출범에 따라 사명을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으로 변경하고, AI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GPU 서버, 병렬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필두로 다양한 AI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수의 AI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창립 이래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고 금액 수주 성과 달성(NIRS)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NIRS(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 통합 구축 HW 1~5차 사업을 수주하며, 창립 이래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최고 금액의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과 가용성이 핵심인 NIRS 사업에서,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서비스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수주를 이끌어냈다.

## 탄탄한 콘텐츠 인프라를 위한 JTBC의 선택 구독형 스토리지 서비스 'HIS STaaS'

방송 미디어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무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스토리지 관리에 더해 탄탄한 인프라 도입이 현업 조직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스토리지의 안정성과 확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지금, 인프라 관리를 간소화하고  
비용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방송사가 있다.  
차별화된 콘텐츠로 방송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가는 JTBC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자.



왼쪽부터 JTBC 미디어텍 기술기획팀 박진우 부장, 미디어기술본부 박연욱 본부장, 기술기획팀 김보경 팀장

### 한계에 다다른 저가형 스토리지 인프라

2011년 설립한 종합편성채널 JTBC는 개국 15년을 앞두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큰 폭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이런 JTBC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방대한 콘텐츠를 저장하는 인프라가 노후화되며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JTBC는 그동안 방송 콘텐츠 자산을 저장하기 위해 저가형 NAS를 활용해 왔습니다. 방송 제작용으로는 고성능 스토리지를 사용하지만, NAS는 온전히 ‘저장’ 목적이어서 저가형 장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NAS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JTBC에서 미디어용 데이터 및 인프라를 담당하는 JTBC 미디어텍 기술기획팀 박진우 부장이 NAS의 활용 현황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JTBC는 미디어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저장용 인프라의 신규 구축과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복잡한 내부 절차 등으로 인해 적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프로그램 제작 수요에 맞춰 저가형 NAS를 그때그때 구매하며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년여 전부터 저가형 NAS에 장애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 전체 시스템의 가용성이 낮아지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 사용자들로부터 ‘느리다’ ‘작업이 끊긴다’는 불만이 계속됐다. 특히 콘텐츠 편집이나 업로드, 공유처럼 실시간 처리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 낮은 성능은 큰 걸림돌이었다. 더 이상 인프라 교체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 인프라를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랐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 새로운 돌파구, 서비스형 스토리지

“방송 콘텐츠 인프라는 안정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저가형 NAS를 고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초기에 높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무리였죠. 그러던 중,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서비스형 스토리지 ‘HIS STaaS’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진우 부장이 HIS STaaS 도입 당시를 회상한다.

다각도의 검토 끝에 JTBC가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HIS STaaS’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초기 도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미래 수요를 고려해 초기에 과도한 용량의 인프라를 도입

했지만 실제 사용률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HIS STaaS 솔루션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용량 도입이 가능해 자원 활용 면에서 효율적이었다. 결과적으로, IT 인프라 예산을 전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회사의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JTBC에 최적이었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HIS STaaS는 VSP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를 활용해 방송 환경에 적합한 고성능과 무중단 확장성, 고가용성 SLA를 제공하며, 도입 이후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초기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 장애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 엔드-투-엔드 방식이어서 신뢰성이 높고, 비용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 제품과 기술지원에 대한 높은 신뢰, 또 다른 기회로 연결

“HIS STaaS 도입 결정 이후 조직 내에 구독형 스토리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초기에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초기 도입비가 낮고 유지보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현업 담당자들은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제공하는 관리의 편의성에 주목했습니다. HIS STaaS를 시범 도입한 후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했고, 관련 조직이 모두 환영하면서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HIS STaaS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TBC가 이처럼 빠르게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의 끈끈한 인연도 한몫을 했다. JTBC는 10여 년 전부터 예능 제작용 스토리지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솔루션을 도입해 사용해 왔다. 처음에는 1식만 구축했으나 프로그램 제작이 늘면서 스토리지 볼륨 역시 증가했고, 상호 간 신뢰가 높아지면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솔루션으로 대부분 교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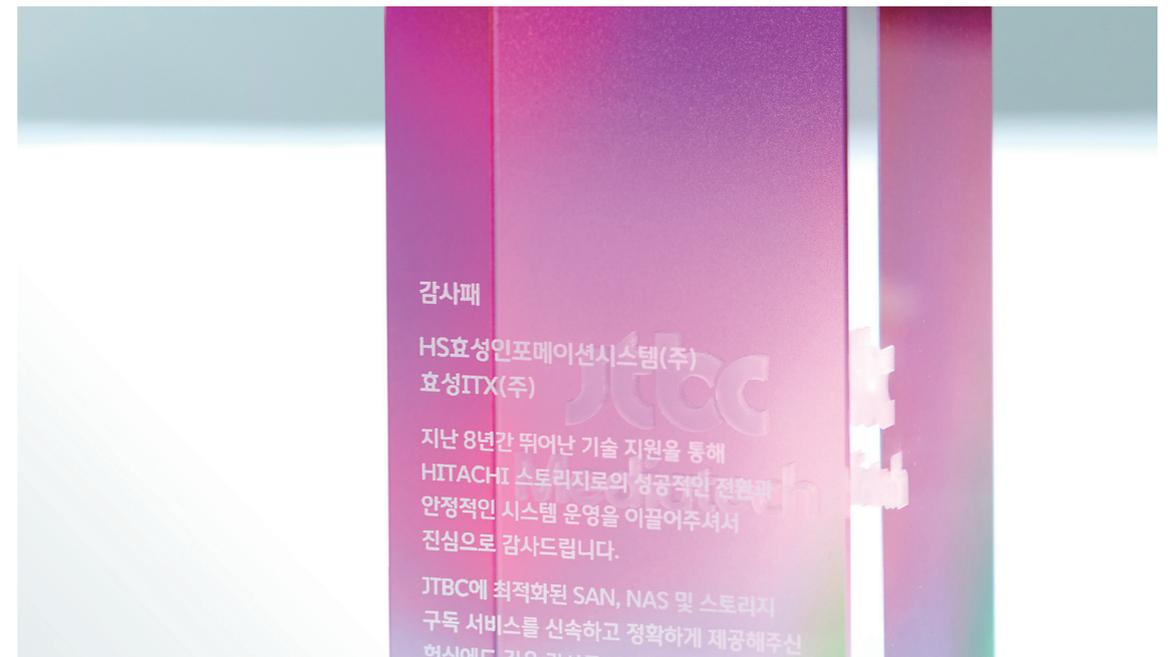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제품은 견고하기로 유명합니다. 예전에 RAID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였어요. 데이터가 대부분 유실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솔루션은 다르더군요. 서비스 중단 상태에서도 파일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유실이 거의 없이 완벽하게 복구됐습니다. HIS STaaS 자체도 좋은 솔루션이지만 기반 제품이 그간 믿고 있던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제품이라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 최상의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까지 확보

“운영자로서는 스토리지 인프라가 구독 방식이든 구매 방식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유지보수가 관건입니다. 6개월 이상 HIS STaaS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무엇보다 기술지원이 빠릅니다.” 박진우 부장이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한다.

예전에는 스토리지 인프라 도입 시 최소 3~5년치 예상 용량을 한꺼번에 도입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적지 않았다. HIS STaaS로 전환한 후에는 초기 투자 대비 연 20~3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덕분에 JTBC는 도입 초기에 필요한 용량을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저가형 NAS뿐만 아니라 타 벤더에서 분산 운영 중이던 일부 서비스 데이터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인프라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 향상이라는 부가 효과까지 얻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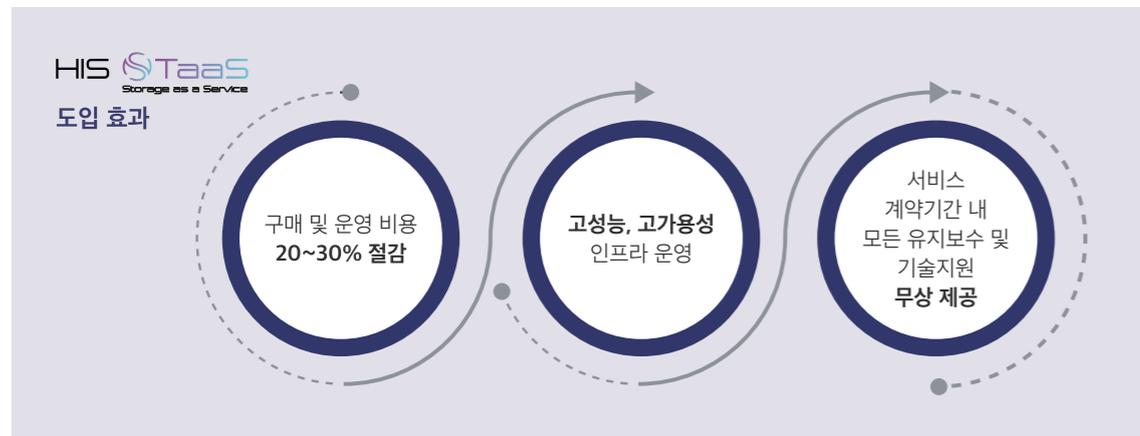
HIS STaaS는 도입 당시 실시간 영상 편집 및 트랜스코딩 작업을 고려해 성능을 검토했고, 실제 운영 중인 환경에서도 성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인프라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운영자로서는 신경 쓸 일이 없다. 성능과 안정성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이유다.

**고객 관점의 기술지원, 최고의 만족 포인트**

JTBC는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단순히 스토리지를 공급하는 벤더가 아니라, 고객의 IT 환경과 운영 프로세스를 함께 고민하는 ‘서비스 파트너’로 생각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함축했다.

먼저,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컨설팅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단순히 용량만 계산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JTBC 방송사의 콘텐츠 워크플로우, 향후 트래픽 증가 예측, 실시간 편집·전송·보관의 사용 패턴까지 자세히 분석해 고객 맞춤형 스토리지 구성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오픈 후 병목 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었다.

다음은 전담 기술지원 체계가 뛰어나다는 점이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스토리지 전담 엔지니어가 직접 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하는 Premium Support를 제공한다. 덕분에 운영자 관점에서 느끼는 관리 부담이 현저히 줄었고, 문제 발생에 대한 불안도 해소되었다.



“사용자 관점에서 스토리지 인프라 운영 시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여부’입니다. 이 점에서 HIS STaaS의 성능과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기술지원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JTBC 미디어텍 기술기획팀 박진우 부장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철저한 책임감이다. JTBC는 실제 장애 발생 시 단순 대응을 넘어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향후 운영 개선안까지 함께 제공하는 모습에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앞선 도입으로 확장 가능성 무한대**

지난해 말 JTBC가 도입한 HIS STaaS의 첫 번째 목적은 콘텐츠를 통합 저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향후 서비스 통합과 미디어 파일 보관 방식에 따라 용량 추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먼저, JTBC 산하 콘텐츠 제작부서나 외부 협력회사로 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이다. 팀 단위로 운영하는 자원을 단계적으로 전사 확대할 때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JTBC는 내부 인프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계열사와 연계해 방송 콘텐츠 제작 관련 독립 PD나 외부 협력사를 대상으로 스토리지 임대 서비스 제공도 검토 중이다. HIS STaaS 서비스가 자원 분할과 계정 기반 과금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단순한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 JTBC의 콘텐츠 생태계 확장과 수익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방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 20년 데이터 기술력의 강자 유알피 AX 시대 비상의 날개 펴다

공공 업무관리시스템 분야에서 20여 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AI 영역까지 확장하며 차별화를 꾀하는 기업이 있다.

2004년 설립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주)유알피의 이야기다.

업무관리시스템의 강자로서 AI 기술을 통해 혁신의 도약대를 마련한 유알피를 만나본다.



왼쪽부터 이건민 사원, 조창희 이사, 황선희 수석, 고희석 전무, 강우인 사원

### AI 전문 기업으로의 비상 위한 유알피의 도전

유알피(URP)는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공공 부문,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그간 인프라 통합과 운영 관리, 솔루션 개발 역량을 두루 갖추며 회사 역량을 키워온 유알피는 몇 년 전,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유알피는 2013년부터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문서’ 시스템 개발과 구축, 운영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약 4년 전, 차세대 온나라 시스템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AI 서비스와의 통합을 모색하면서 AI 비즈니스에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유알피에서 시마케팅을 총괄하는 고희석 전무가 유알피 비즈니스의 역사를 설명한다.

기존에는 행정기관용 온나라문서 시스템 관련 사업들이 주력이었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AI 전환 시대에서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AI 플랫폼, AI 솔루션 및 AI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유알피는 AI 사업 시작이래 확보한 차별화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분야에서 신뢰성 높은 AI 솔루션을 제공하며 AI 전문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 AI 비즈니스 도약의 서막, 고성능 GPU

본격적으로 AI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유알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AI연구소’ 설립이다. AI 기술 및 자체 솔루션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AI 비즈니스에 공격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연구소는 설립 이후 매년 조직을 확대하며 어느새 유알피의 핵심 자원이 됐다.

“AI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필요한 인프라는 GPU였습니다. AI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만큼 GPU 구매 주기도 점점 빨라졌죠. 그런데 AI 개발 업무에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GPU의 성능이 제한적이어서 AI 모델 개발 및 검증 기간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델 학습과 검증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되다 보니 AI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고성능의 GPU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희석 전무는 신규 GPU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당시를 회상한다.

유알피가 GPU 도입을 위해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단연 ‘실행력’이었다. 중소기업으로서 AI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민첩하게 움직여야 했다. 20여 년간 유알피가 축적해 놓은 사업 경험을 활용하려는 방안이기도 했다. 특히 기존에는 공공 부문 중심의 사업이 주를 이뤘다면 AI 비즈니스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소 역시 다양한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했다.

결국, 유알피는 고객에게 최적의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뛰어나고 실행력을 갖춘 GPU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GPU 제공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장벽이 버티고 있었다.

“AI 비즈니스를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고성능의 GPU 도입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전보다 비용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투자 대비 확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 전보다 기술지원이 원활하고 탄탄한 벤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중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고희석 전무는 AI 비즈니스 파트너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만났던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 오랜 파트너에서 고객으로, 영역을 넘나들다

유알피가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최종 선택한 것은 GPU의 장점도 물론 있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더욱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알피 인프라사업본부는 수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합 유지보수 및 SI 사업을 수행하며,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협력한 바 있다. 스토리지와 서버 등 주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신뢰는 두터워졌다. 특히 현장에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기술력과 책임감 있는 영업력을 직접 경험하며, GPU 구매에서도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판단해 적극 추천하게 된 것이다.

“유알피는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오래전부터 다양한 사업에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유알피가 처음 GPU를 구매할 때도 인프라사업본부에서 추천했어요. 인프라사업본부는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내부 조직입니다. 바로 이 팀에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추천했기에 신뢰할 수밖에 없었지요.” 고희석 전무를 통해 유알피와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관계가 매우 단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유알피가 최근 도입한 GPU는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제공하는 NVIDIA DGX B200으로, AI 비즈니스의

개발부터 배포로 전환하는 파이프라인용 통합 AI 플랫폼이다. B200은 이전 세대보다 3배 높은 훈련 성능과 최대 15배 높은 추론 성능을 제공하며, LLM부터 추천 시스템, 챗봇 등 다양한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 AI 혁신을 가속하려는 기업에 이상적인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

#### 성능 향상으로 AI 비즈니스 성장 속도 기대

유알피가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통해 GPU 도입을 완료하고 사용한 지는 두어 달 남짓에 불과하지만, 효과는 즉시 체감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모델 학습에만 한 달 가까이 걸렸다면, 현재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더욱 많은 모델 학습과 테스트가 가능해,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00% 활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에 비해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만으로도 성과가 큼니다. 연구소의 부담이 경감되면서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생겼지요. 이번에 도입한 GPU를 통해 연구소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고 배포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는 데 만족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간다면 활용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업무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희석 전무는 GPU 도입 효과와 함께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 덧붙였다.



유알피는 그동안 자원 부족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던 AI 비즈니스가 B200 도입 이후 커다란 기회를 맞게 됐다. 특히 공공부문 위주로 개발한 서비스들을 민간 영역에 맞춰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B200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의 파트너십도 마찬가지다. 유알피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하드웨어 인프라와 접점의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협업할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고형석 전무는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신뢰를 기반으로 최신 GPU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한 만큼, 내부 개발자들이 해당 자원을 잘 활용하여 양질의 개발에 힘쓰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사의 협업 기회가 더 확대될 것입니다.”라며 양사의 비즈니스 협력과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 유알피만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전진

현재 유알피의 주요 비즈니스는 △AI와 생성형 AI 기반의 기업/기관 전용 AI 서비스 플랫폼 구축 △온나라 문서시스템 등 정부 업무관리 통합 솔루션 제공 △IT 인프라 구축부터 컨설팅, 서비스 구축, 유지보수 등이다.

특히 유알피는 SI업체이면서도 공공기관 비즈니스에 특화된 강점이 있다. 이는 공공사업 특성상 안정성, 품질 등이 중요한 선택 요소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회사를 신뢰하는 경향에 따른 데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말에는 AI 솔루션 제품군 4종이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는 범정부 생성형 AI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공공 AI 선도기업으로의 입지를 탄탄하게 굳히고 있다.

유알피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AI 솔루션은 총 네 가지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수집과 사용자 의도 파악을 통해 최적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urAISearch, RAG 기반 기술을 적용한 채팅형 AI 대화서비스 urAIChat, 기업/기관을 위한 AI 문서 활용플랫폼 ‘urAIDocu’, 전자문서관리의 표준 시험 통과, 통합 및 표준화된 프로세스 기반의 ‘urAIDCM’이 그것이다.

특화 솔루션 AI OCR은 몇 년간 기술 개발을 거친 끝에 까다로운 표, 이미지를 최고의 품질로 DB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문서를 기반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부분은 유알피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인 데다, 국내에서 활용되는 솔루션 중에서 최상위 품질을 자신한다.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다양한 솔루션이 있지만, 우리만의 영역을 찾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AI 비즈니스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의 솔루션을 적극 알림으로써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자체 개발을 통해 탄생한 AI 솔루션(AI Search, Chat, Docu, DCM)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AX(AI 전환)가 이슈가 된 요즘, 20년간 쌓은 전문성에 AI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밸류체인(Value Chain) 자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목표를 세운 유알피.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AI 생태계에서 승승장구할 유알피를 지금부터 주목해 보자.



“고성능 GPU를 도입함으로써 AI 비즈니스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긴밀하게 협업함으로써 기업들의 AX(AI 전환)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알피 고형석 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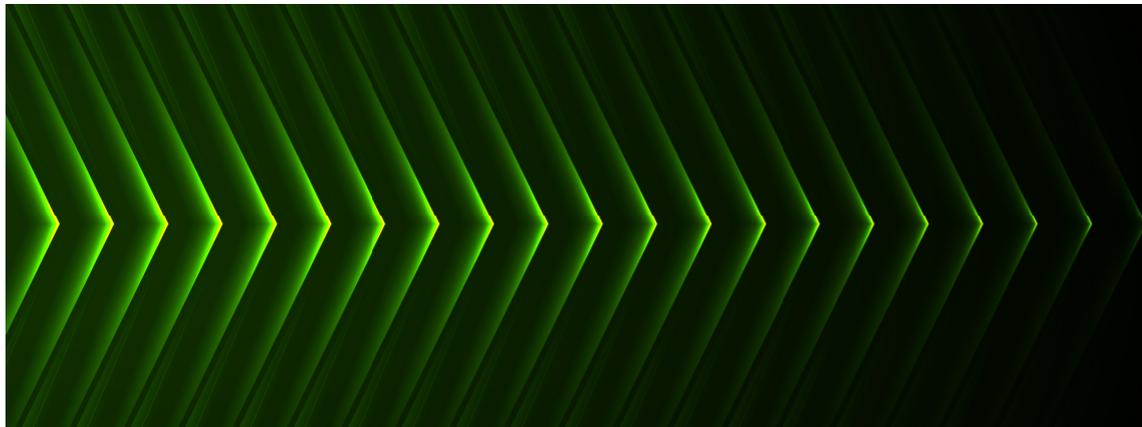
# AI 시대의 주역, Arm 서버와 차세대 보안 솔루션

## Part I. AI 시대! 아주 특별한 서버가 나타났다

AI로 인해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고성능 서버 도입 비용의 증가와 전력 소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24년 발간된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에는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의 40% 정도가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즉, AI가 성공하려면 전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에서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지점은 서버나 스토리지의 발열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냉각 부문이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되어야 한다. 서버나 스토리지에 장착된 인텔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데이터센터에서 소비하는 전기의 50% 정도를 냉각 시스템에 할애하는 이유다.

소모 전력량이 낮고 냉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서버가 있으면 전력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Arm 서버 도입을 검토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 빅테크가 앞다퉈 도입하는 Arm 서버

Arm 칩은 배터리 기반의 모바일 장치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어, 저전력과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산업 장비에도 많이 쓰일 정도로 안정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Arm 서버는 Arm 칩을 메인 CPU로 채용했는데, 최근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인텔 칩이 아닌 Arm 칩을 주요 CPU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Arm 서버가 관심을 받는 세 가지 이유를 알아본다.

### 01 | 저전력&저발열

기존 AMD 칩의 경우 TDP(칩이 최대한 사용하는 전력량)가 280와트인데 비해 Arm 칩은 암페어가 알려준 수치보다 훨씬 낮은 170와트밖에 쓰지 않는다. Arm 서버 10대를 사용할 때 필요한 산업용 전기료를 계산한 결과, x86 기반 서버보다 거의 2배 이상 적게 나오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Arm 칩은 전력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발열도 적지만, 무엇보다 칩 자체가 열에 강하다. 성능 저하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냉각 비용을 많이 들여 데이터센터를 낮은 온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x86 기반 서버는 25도 이하를 유지해야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데 비해 Arm 서버는 3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온도 문제는 또 다른 이점을 가져다준다. 기존 인텔, AMD 칩 기반의 서버는 차가운 공기로 대류를 시켜야 하므로 랙 사이사이를 비워 두어야 했다. 반면, 발열 문제에서 자유로운 Arm 서버는 랙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의 공간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 02 | 도입 비용 절감

Arm 칩은 내부 설계 구조가 단순하고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텔 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따라서 코어당 단가가 훨씬 낮고, Arm 칩의 저전력·저발열 구조는 구성 부품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 03 | 고효율 성능

그간 Arm 서버는 저전력의 모바일 칩을 탑재한 서버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 고성능 칩이 대거 출시되고 있다. 192코어에 3.0GHz를 지원하는 칩이 최근 출시된 데 이어, 올해 안에 256코어 3.2GHz를 지원하는 칩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x86 기반 서버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 코어 한 개를 마치 두 개처럼 쓸 수 있는 Hyper-Threading 기술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AI와 같은 고성능 병렬 연산 업무에서는 성능 저하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전력 비용 증가와 냉각 효율 저하, 보안 문제 등도 따른다.

Arm 기반 서버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멀티태스킹을 위해 매니코어 방식을 내세운다. Arm 기반 서버는 고성능 병렬 처리 환경도 단일 칩에서 구현함으로써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작은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지는 환경에서 효과적이다. 특히 AI 업무나 오픈소스 기반 업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니코어 방식을 지원하는 Arm 기반 서버가 최적이다.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엑세스랩이 선보이는 ‘GreenCore’ 시리즈

Arm 서버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면서 국내 Arm 서버 시장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Arm 서버 전문 기업인 엑세스랩이 협업하며 생태계 확장에 나선 것이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엑세스랩의 협업 결과물은 Arm 서버 제품으로 개발한 ‘그린코어(GreenCore) 시리즈’다. 암페어(Ampere) 최신 컴퓨팅 칩을 비롯한 다양한 Arm 기반 칩들에 기반한 그린코어 시리즈는 고객의 환경에 맞게 구별하여 다양한 모델로 출시되었다. 오픈스택(OpenStack), 쿠버네티스(Kubernetes) 등 오픈소스 클라우드 및 컨테이너 환경부터 오픈소스 DB, 리눅스 기반 솔루션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린코어는 에지 환경을 위한 저가형 그린코어 SQ Mini 모델부터 범용 서버인 LX 모델,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합한 Altra 시리즈, AI 환경에 적합한 Altra GPU로 구분된다. 그린코어 Altra 128모델은 Arm 칩 128코어에 3.0GHz 암페어 칩이 내장되어 있는데, GPU도 같이 장착해 추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컨설팅부터 HW/SW 통합 지원

현재 국내에서 해외 일부 기업이 Arm 서버를 판매하고 있지만, 단순히 딜리버리하는 수준에 그친다. 간단한 기술지원 조차도 해외 본사를 거쳐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10년 이상 Arm 서버 사업에 집중해 온 엑세스랩은 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문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어 메인보드 자체 설계와 국내 생산으로 고객에게 빠른 납품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BMC라고 부르는 서버 시스템 원격 모니터링 기술은 또 하나의 큰 차별점이다. 엑세스랩이 자체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BMC는 누구나 쉽게 데이터센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엑세스랩과 함께 Arm 아키텍처의 안정성 부분에 집중했다. 여기에 국내 유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체험공간인 DX센터에서 그린코어 시리즈에 대해 고객이 직접 성능과 소프트웨어 연계 등 다양한 부분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점도 강점이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엑세스랩이 국내 Arm 서버 시장에 큰 이정표를 남기는 모습을 주목해 보자.



↓ 영상 다시보기



모델	GreenCore SQ mini	GreenCore LX	GreenCore Altra 80	GreenCore Altra 128	GreenCore Altra GPU
외형					
포지션	엣지서버 시장 (연속도 환경)	데이터센터 서버 (하이-레인지)	클라우드 서비스(하이-레인지) 코딩용 서버 (하이-레인지)		GPU AI
주요 용도 (주요 환경)	저가형 서버, 엣지환경	데이터센터 저장 용량서버	고용량 서버 용량서버, 저장용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저가형 추론용 GPU 인당 (GPU 연산기)

김민수 매니저 | 저희가 다양한 모델을 고객 환경에 맞게 출시를 했는데요

## Part II. 변화하는 백업 환경을 위한 최적의 선택

기업용 데이터 백업 시장이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는 연평균 8.9%의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는 웬만한 IT 인프라 수요보다 높은 수치다. 백업 시장의 급성장은 랜섬웨어나 AI, 클라우드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랜섬웨어는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수익성 높은 사업 모델이 되었으며, 피해 사례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30%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화로 약 300조 원이 될 전망이다.

랜섬웨어나 사이버 공격은 어느 기업이든 피할 수 없다. 더 위험한 것은 피해 범위를 확인할 수 없고, 인프라의 어떤 지점에 어느 정도 규모로 악성코드가 깔려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언제, 어디서 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두려운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차세대 백업 솔루션은 랜섬웨어 같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주요 서비스가 공격당했을 경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관리 포인트 증가로 통합 백업 필요

생성형 AI를 비롯한 다양한 워크로드가 급증하면서, 백업해야 할 데이터양은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까지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기업의 IT 인프라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물리, 가상,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백업할 경우, 관리가 복잡해지고 유지 비용도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 환경을 통합해 백업하고 싶어 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이유다.

다만, 단순한 통합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백업 데이터의 이동성과 유연한 복구가 가능해야 한다.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등 위치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백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라이선스 비용은 더 합리적이어야 한다.

복잡한 인프라 환경에서의 통합 백업, 그리고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한 백업 솔루션이 필요한 때다.

### 차세대 데이터 보호 솔루션 ‘HVA’

최근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빔(Veeam) 코리아는 통합 백업 어플라이언스 HVA(Hitachi Veeam Appliance)를 출시하며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백업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양사는 세일즈와 마케팅 협업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Veeam 본사 차원에서 히타치 벤틀라 스토리지와 관련한 플러그인 개발, 성능 테스트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Veeam의 협업 결과물인 HVA는 백업 소프트웨어와 백업 서버, 스토리지를 통합한 백업 전용 어플라이언스이다.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므로 도입 속도가 빠르고 운영도 간소화할 수 있다. 기술지원, 운영 컨설팅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어 ‘완성형’ 백업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HVA는 고객사의 규모나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백업 성능과 용량을 기준으로 엔트리는 Usable 12TB까지, 미드레인지는 Usable 72TB, Usable 72TB 이상은 하이엔드가 적절하다. 하지만 양사는 기업 환경이나 니즈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HVA는 단순히 '백업 장비'라고 할 수 없다. HVA를 보안, 복구, 운영, 확장성까지 고려한 미래형 백업 플랫폼으로 자신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 01 | 3단계 랜섬웨어 대응 통합 솔루션

사실 하나의 포인트 솔루션으로는 랜섬웨어를 막기 힘들다. HVA는 Veeam의 AI 기반 이상 행위 탐지 기능을 통해 랜섬웨어나 악성코드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Immutable 저장소를 통해 백업 데이터를 변경 불가 형태로 저장한다. HCP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연동되면 총 3단계 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HVA는 단순히 백업만 하는 게 아니라, AI 기반의 사전 탐지부터 변경 불가능한 저장, 그리고 다단계 보호 구조까지 갖춘 완벽한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이다.

### 02 | 멀티 백업 데이터 통합 관리

가상화 환경이나 클라우드 환경이 늘면서 백업 관리 포인트가 다양해지고 있다. HVA는 이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이다. 가상화 환경이나 클라우드 환경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기반의 PaaS 환경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호환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강점은 IaaS, PaaS, SaaS 등의 환경에서만 백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베어메탈(Bare Metal)이라는 물리 서버들을 포함해 IBM, 오라클 등이 공급하는 유닉스 서버도 지원한다.

### 03 | 업계 최고의 안정성과 신속성

HVA는 뛰어난 안정성과 신속성을 통해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에 적합한 솔루션이다.

11년 연속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 1위인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데다 Veeam 솔루션은 세계 1위 백업 소프트웨어다. 백업 어플라이언스 HVA의 안정성은 이런 시너지를 집약해 만들었기에 더 믿을 수 있다.

백업이 필요한 이유는 장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업무 복구를 하기 위한 것이다. Veeam이 제공하는 즉각 복구 기능과 히타치 밴타라가 제공하는 스토리지 복제 또는 스냅샷 기능을 통해 RTO(복구시간목표) 및 RPO(복구시점목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특징 외에 HVA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OS와 DB 백업이 동시에 가능하다. 여기에 AIX, Solaris, Linux, Windows 등 다양한 OS 백업을 단일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점도 특징이다. 타 기업의 백업 솔루션들은 대부분 OS 백업은 별도 솔루션을 요구하지만, HVA는 기본 제공하므로 다양한 OS 환경을 한 번에 백업·복구할 수 있다. 추가 제품을 도입하거나 복잡한 연동 작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다. 도입 비용은 줄이고,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은 높일 수 있어 고객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영상 다시보기

HS효성 TMI Ep07  
국내 백업시장 트렌드 점검

랜섬웨어 대응부터 AI·클라우드 백업 전략

Veeam + Hitachi Vant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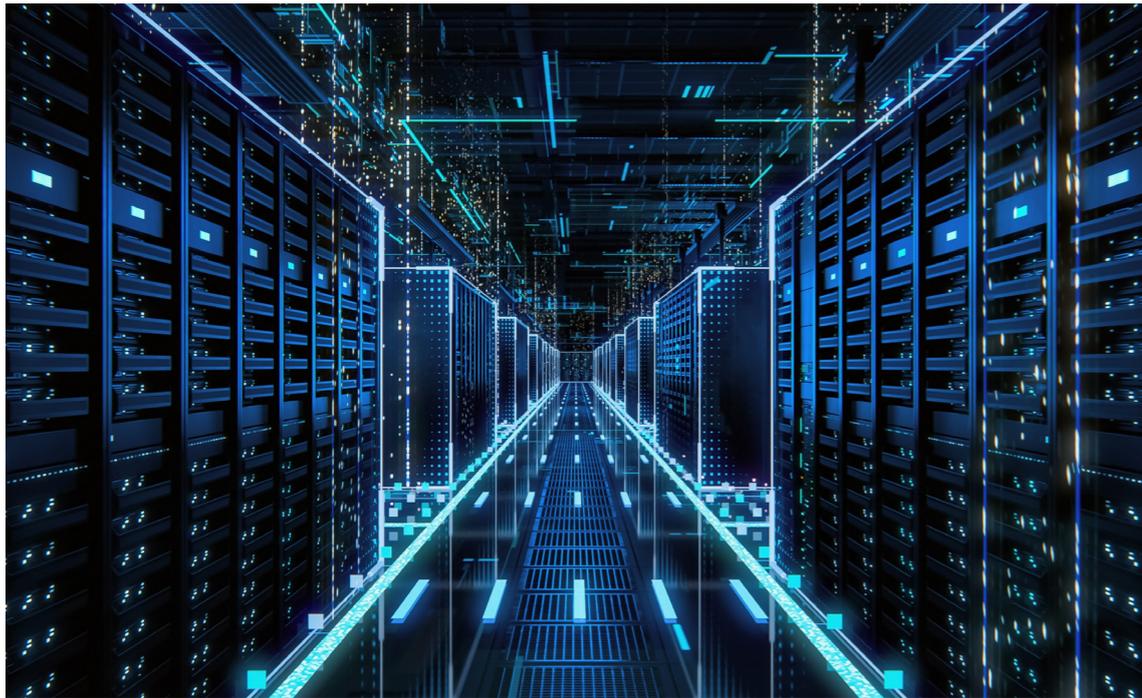
- OS, DB의 RIA, HaaS 통합 관리
- 권역별 AS를 위한 정기 탐지 및 분석
- Hitachi 안정성, Veeam 신속한 백업 및 복구

HVA = 백업 소프트웨어, 백업 서버, 스토리지를 통합한

## 데이터센터 혁신을 위한 간편한 선택법

AI를 비롯해 디지털 혁신이 가속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IT 인프라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으로는 모든 인프라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운영되는 SDDC가 대세다.

기업의 데이터센터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SDDC 솔루션을 제공해 온 HS호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최근 올인원 가상화 어플라이언스 'UCP(Unified Compute Platform) HV'와 실용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솔루션 'UCP CA', AI 어플라이언스 'UCP AI' 등 3종을 잇달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UCP 솔루션의 기능과 특징점을 살펴본다.



### Solution 1. 올인원 가상화 어플라이언스 'UCP HV'

UCP 시리즈에 새롭게 등장한 UCP HV는 SDDC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 솔루션이다. 고성능 스토리지부터 가상머신(VM), 네트워크 관리 등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관리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다. 급변하는 IT 비즈니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데이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가상화 어플라이언스'인 셈이다.

UCP HV는 합리적인 가격의 영구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저비용으로 SDDC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최근 외산 솔루션 제조사의 가격 정책 변화로 고민이 많던 IT 운영자들에게 반가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구 라이선스 기반이므로 인프라 확장이 필요할 때 비용 예측이 용이하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도 효율적인 확장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하드웨어 역시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 최고의 가성비로 최적의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UCP HV는 기업 전용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다. SDDC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인프라 컨트롤 플레인이 탑재되어 있으며, 자가 진단과 자가 치유, 무중단으로 확장 가능한 인프라 데이터 플레인이다. 서버 3대에 Cube OS만 설치하면 올인원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확장이 가능하다.

#### IT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가능

UCP HV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점은 무엇일까.

첫째, UCP 서버에 완전히 통합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사전 검증해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한다. 둘째, OS 설치부터 클라우드 구성까지 모두 마법사를 통해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구성요소의 상태 역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서버, 스토리지, 가상머신, 컨테이너 등 모든 자원을

웹으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에 접속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넷째, VDI, 백업, 빅데이터 등 다수의 플랫폼은 물론, 서드파티 벤더 제품과도 호환이 가능하다. 다섯째, 자체 하이퍼바이저, VMware, Citrix XenServer, Hyper V, Linux KVM 등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며, 외장 스토리지 지원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CP HV는 내장된 하이퍼바이저를 비롯해 스토리지, 클라우드, 네트워크, 모니터링, 자동화 등 모든 IT 서비스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UCP HV는 필요에 따라서 영구형 라이선스와 구독형 라이선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하드웨어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만 도입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갖췄다.

## Solution 2. 'UCP CA', 복잡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간편하게

AI와 데이터 분석이 비즈니스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AI 표준 기반 기술인 컨테이너 환경에 더해 고성능과 확장성, 효율성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전력 비용의 폭등, 멀티 벤더 관리에 따른 복잡성 증가,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대응이라는 과제를 한 번에 안겨주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UCP CA는 Arm 아키텍처의 우수한 에너지 효율성과 국내 PaaS 기술력을 결합한 차세대 어플라이언스다. UCP CA는 하드웨어와 플랫폼 간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 확장성, 기술지원까지 모두 갖춘 실용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솔루션이다. 통합 UI를 통해 전체 리소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원스톱 지원 창구를 통해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신속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UCP CA는 빠른 온프레미스 구축을 위한 사전 통합형 플랫폼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기반의 CI/CD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Arm 서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전력과 저발열 특성으로 동일 공간에 더 많은 서버를 배치할 수 있다. 또한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PaaS 관리 서비스와 온프레미스 운영 관리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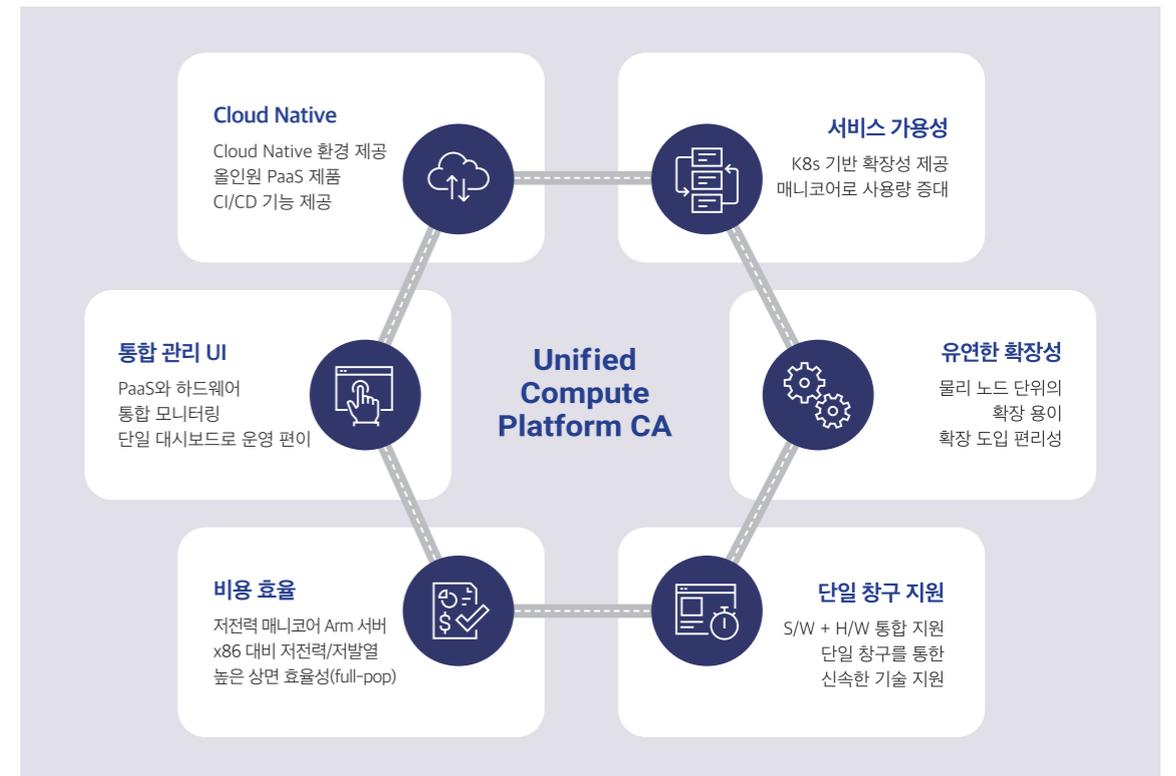
##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 니즈 충족

통합 PaaS 어플라이언스인 UCP CA는 비용과 운영 면에서 도입 효과가 확실하다.

먼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UCP CA는 x86 기반 서버 대비 전력 소모는 50~70% 절감되고, 총 소유비용(TCO)도 약 30% 절감 효과가 있다.

운영 면에서는 현대화된 IT 기술이 내재된 최신 인프라를 도입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과 자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PaaS 포털을 통한 리소스 모니터링 제공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환경을 제공하므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

## UCP CA의 특징



UCP CA가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첫 번째, '그린 IT 실현'이다. UCP CA는 Arm 서버 기반으로 x86과 비교해 전력 소모량이 대폭 절감되며, 멀티코어 설계로 AI 및 데이터 워크로드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 두 번째는 사전 검증된 '원스톱 올인원 솔루션'으로, 복잡한 통합 작업을 하지 않고 즉시 운영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 아키텍처'라는 점이다. UCP CA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PaaS, 통합 모니터링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완벽히 지원한다.

UCP CA 하나만으로도 TCO 절감, 운영 효율화, 미래 확장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더욱 쉽게 PaaS 플랫폼을 도입·운영하고 싶다면, UCP CA가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다.

### Solution 3. UCP 서버와 AI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한 'UCP AI'

기업의 AI 도입 요구는 증가하지만,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와 복잡한 구축 과정, 예측 불가능한 비용 문제 등으로 많은 기업이 AI 활용을 망설이고 있다. UCP AI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완전한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면서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AI 어플라이언스이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검증된 안정성과 성능을 바탕으로 사전 구성된 AI 솔루션을 툰키로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구축과 튜닝 과정 없이 즉시 운영 환경에 배포할 수 있다.

UCP AI는 기업 내부에서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프라이빗 AI 환경을 통해 정보보호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면서도,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월 단위 구독료나 API 호출 비용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초기 투자 비용만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T 예산 계획 수립과 관리가 쉬우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AI 도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UCP AI는 백오피스 환경에 최적화된 온프레미스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로,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도 AI 기능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복잡한 구축 과정 없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설치되며, 다양한 AI 모델 중에서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 프라이빗 AI 서비스 기반의 AX 환경 제공

UCP AI만의 네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용 효율적인 AI 시스템이다. 개인이 가입해서 활용하는 AI 서비스 대비 30% 이상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 선택으로 비용 효율화도 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양한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UCP AI는 다양한 글로벌 LLM 모델 또는 Deepseek 등의 신규 모델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매끄럽다. 기존 운영 시스템(그룹웨어, 문서 시스템 등)의 사용자 계정 및 그룹 계정을 연계해 사용자/그룹 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은 컨테이너 기반 구조라는 점이다. UCP AI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유연한 기능의 확장 및 교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또한 플랫폼의 통합 관리 및 시스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UCP AI는 AI 기반의 업무 자동화가 가능해 약 90%의 시간을 절감하고, 일관된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정확성은 2배로 높아진다. UCP AI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프라이빗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AX(AI 전환) 환경을 제공하는 똑똑한 솔루션이다.

## AI 데이터센터, 이것 하나면 끝!

### 차세대 국가 전략사업으로 떠오른 AI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는 AI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학습, 배포, 제공하는 데 필요한 AI 인프라를 위한 것으로, 기존 데이터센터가 감당하지 못하는 막대한 연산과 데이터 처리를 위해 등장했다. AI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아키텍처 등을 갖춘 AI 데이터센터는 AI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기존 데이터센터는 웹, DB,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앱 등 일반 컴퓨팅을 작동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AI 데이터센터는 AI와 머신러닝에 특화되어 있는 고성능 솔루션의 집약체다. 고성능의 GPU 기반 연산 자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센터에 비해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높은 발열 현상 역시 동반된다. 따라서 AI 데이터센터는 발열을 낮출 수 있는 쿨링 기법이 동반되어야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다.

특히 기존 데이터센터의 PUE(전력 사용 효율성)가 1.5~1.8 정도라면, AI 데이터센터는 최신 기준으로 1.1~1.5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대 1.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발 중이다. PUE는 데이터센터의 전체 전력 소비량을 IT 인프라 전력 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1.0이라는 수치는 데이터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전력을 IT 리소스 운영에 전부 소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AI 데이터센터의 네 가지 구성 요소

국내외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AI 데이터센터의 주요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AI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GPU 등을 포함한 고성능 컴퓨팅(HPC)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AI 분석을 위한 효율적이면서 고성능의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하며, 세 번째는 고성능의 연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소스 효율화 솔루션, AIOps Stack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구성 요소는 탄소 절감, 냉각 등 ESG를 위한 전력 효율화 솔루션이다.

AI 데이터센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이슈 몇 가지를 살펴본다.

가장 먼저, AI 데이터센터의 기본은 '고성능'이다. 고성능 GPU 서버, 고성능 스토리지 및 AIOps 솔루션, 데이터 거버넌스 등 다양한 솔루션이 복합적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역시 무궁무진하다. 현업 담당자들이 이러한 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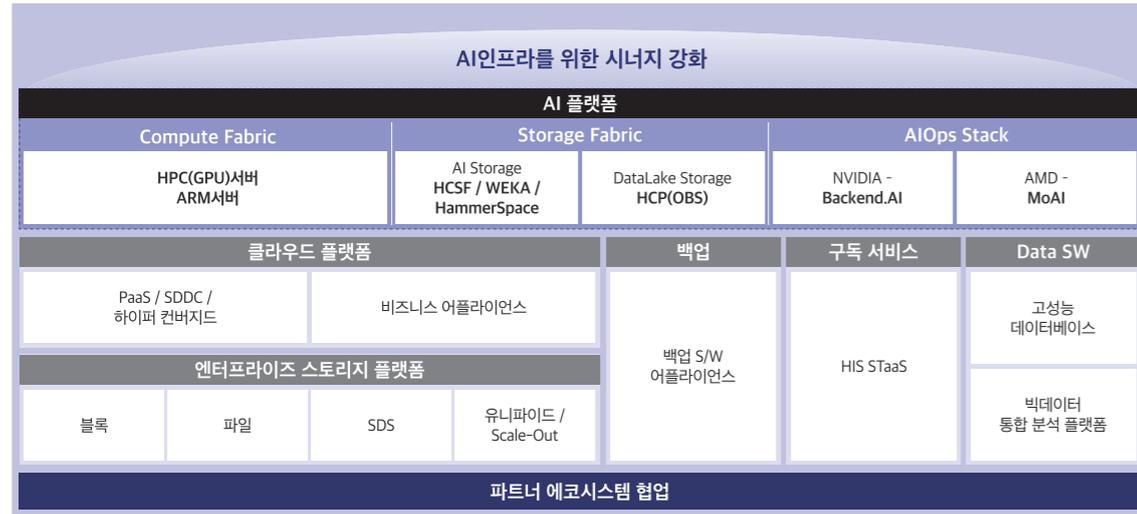
다음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별적으로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세 번째는 기업 내에 AI 데이터센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재, 그리고 AI 전문 파트너사 역량에 대한 고민이다.

이처럼 AI 데이터센터 구현에 앞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의 AI 전환 및 최적의 데이터센터 구현을 지원하고 있다.

### HW부터 AIOps Stack까지, AI를 위한 최적의 선택 'HS효성 AI 플랫폼'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AI 플랫폼은 저전력,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등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고객의 니즈 및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편리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에코 파트너와 협업하며 라인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AI 플랫폼



AI 플랫폼은 크게 Compute Fabric과 Storage Fabric, 그리고 AIOps Stack으로 구성되어 있다.

Compute Fabric은 GPU 서버 라인업과 친환경 저전력의 Arm 서버로 구성되어 있고, Storage Fabric은 AI 스토리지 레이어에 고성능 병렬파일시스템 HCSF와 Weka, 그리고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인 Hammerspace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는 전통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 HCP를 기반으로 S3 API를 지원한다. AIOps Stack으로는 NVIDIA를 위한 Backend.AI, AMD GPU를 위한 MoAI를 지원하고 있다.

### 고성능 AI HW - GPU & 스토리지

가장 먼저,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글로벌 GPU 서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슈퍼마이크로의 GPU 서버를 제공한다. 슈퍼마이크로는 전년 대비 55%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활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슈퍼마이크로의 FTM 전략이 주효했다.

FTM(First To Market) 전략은 급변하는 AI 관련 기술을 가장 먼저 시장에 선보인다는 의미다. 슈퍼마이크로는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기술력을 향상시켜 출시 과정을 간소화하고, 안정성과 호환성이 뛰어난

제품을 발빠르게 출시하면서 마켓 쉐어를 확장했다.

특히, 슈퍼마이크로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화를 위한 냉각 방식으로서 Liquid Cooling 기법을 지원한다. 최근 출시한 'DLC-2'는 고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실현하는 차세대 직접 수냉식 솔루션으로, 전력을 40%까지 절감하고 더 나아가 냉각 용수도 4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서버의 98%를 Liquid Cooling으로 냉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GPU가 고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역시 고성능이어야만 한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HCSF 및 Weka 라인업은 AI 업무를 위해 필요한 IOPs 성능과 다양한 인터페이스, 대용량 확장을 제공하는 고성능 스토리지다.

초고성능 분산 병렬파일시스템과 대용량 오브젝트 스토리지 HCP가 만나 HCSF로 제공되며,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토콜 호환성으로 유연한 애플리케이션 연동 환경을 지원하는 이상적인 데이터 분석용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다.

### AIOps, AI 데이터센터 완성의 촉진제

하드웨어 인프라만 도입했다고 AI 데이터센터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고성능 GPU를 구축했음에도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개발자마다 다른 개발 라이브러리에 대해 편리한 환경을 제공받고 싶을 수도 있다. 또는 기존에 도입한 GPU와 차후 도입할 GPU를 함께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즉 하이브리드 GPU 환경을 도입하기 원하는 고객들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많은 에코파트너사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AIOps 솔루션을 소개한다.

기존에 사용하는 인프라 환경이 NVIDIA GPU라면, 국내 기업 레벨업의 Backend.AI를 채택할 수 있다. Backend.AI는 아태지역 최초로 NVIDIA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소프트웨어로, NVIDIA GPU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반면, AMD GPU를 사용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AMD사가 직접 투자한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 모레(MOREH)가 개발한 MoAI를 제안한다.

많은 기업이 NVIDIA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GPU 컴퓨팅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도구 모음인 CUDA 라이브러리 종속성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MoAI 솔루션은 CUDA 종속성을 제거하는 레이어를 제공해, 기존 CUDA 기반의 분석 모델 소스가 AMD GPU(ROCm) 환경에서도 100% 호환되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MoAI는 GPU 가상화 기술 및 자동 병렬화, 네트워크 최적화 등 개발의 편의성과 네트워크 비용 절감, 하드웨어 장애 대응에 탁월한 장점이 있다.

### 지금 주목해야 할 솔루션, Arm 서버 & Hammerspace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퉀 자체 Arm 서버를 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 소모 대비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는 Arm 서버만의 강점 때문이다. Arm 서버는 저전력 및 저발열 서버로, 고성능 AI데이터센터에 적합한 형태의 서버라고 할 수 있다. x86서버의 워크로드를 Arm 서버로 수행하며, 절감된 전력을 고성능 AI인프라에 사용함으로써, AI데이터센터의 PUE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엑세스랩과 공동으로 국산 Arm 서버를 개발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양사의 합작 솔루션 ‘GreenCore’는 Arm 하드웨어 보드를 직접 설계 및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일체형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Arm 서버로, 기업별 맞춤형 관리 환경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데이터를 모으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위치 제약 없는 데이터 운영과 활용도 극대화, 데이터 사일로를 해소하는 기능이 더 필요한 시대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AI 플랫폼은 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으로서 글로벌 파일시스템 ‘Hammerspace’를 제공한다.

Hammerspace는 모든 환경의 스토리지에 구축이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이관할 필요가 없으며, 병렬 처리를 위한 빠른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이다.

# ADVANTAGE

[www.his21.co.kr](http://www.his21.co.kr)

[www.facebook.com/hyosunginfo](https://www.facebook.com/hyosunginfo)

[blog.his21.co.kr](http://blog.his21.co.kr)

[www.youtube.com/hyosunginformation](https://www.youtube.com/hyosunginformation)

## 2025 NO.156

발행일

2025년 12월(통권 156호)

발행처

에이치에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발행인

양정규

진행

마케팅팀

[his-susiejeon@hshyosung.com](mailto:his-susiejeon@hshyosung.com)

편집 및 제작

정보엠앤비 02-535-5215

[www.imb.co.kr](http://www.imb.co.kr)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에이치에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의  
허가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ADVANTAGE 신규 구독 및 주소 변경은

[his-susiejeon@hshyosung.com](mailto:his-susiejeon@hshyosung.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S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